“장애인 포교, 인식 변화부터 시작”

조계종 교육원, ‘불교와 청각장애’ 연수 교육

5월 29~31일 총무원 회의장서 장애인 주제 종단 차원 첫 연수
현황부터 포교론 · 수화까지 배워
“인식 차 확인… 관심 갖게 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연수 교육 진행했다.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불교에도 턱 없이 부족한 포교 분야가 있다. 바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다. 물적인 지원과 환경이 모자란 것보다 더욱 문제는 불자와 스님들의 장애인 인식에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승려 연수교육이 진행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2박 3일간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와 청각장애인’을 주제로 연수 교육 진행했다. 장애인 포교를 주제로 한 인증교육은 있었지만, 종단 차원의 전문 연수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가 강의를 주관한 이날 연수 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30여 명의 스님들이 수강했다. 강의는 장애 인식부터 불교 포교 현황과 제언, 수화 등이 이뤄졌다.

첫 날에는 한국 장애인 현황과 불교의 인식, 포교 현실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강사로 나선 김철환 장애인 벽 허물기 활동가(원심회 회원)는 현재 불교의 장애인 포교가 이웃종교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연구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종교 생활을 통해 소속감과 안정을 찾지만, 정작 불자 장애인은 신앙을 가진 장애인의 7.2%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개신교는 61.5%, 가톨릭은 12.6%에 달한다.

이 같이 참담한 결과는 ‘제로’에 가까운 장애인 포교 환경에 있다.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에 가입한 교회는 113개지만, 조계종 지정 장애인 전법도량은 서울 화계사, 광림사 등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수준이다. 또한 1400여 명의 수화 통역사 중 50명만이 불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철환 활동가는 “현재 장애인들은 불교를 접할 기회을 박탈당하고 있으며, 그나마 불교를 신행했던 장애인들도 개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철환 활동가는 무엇보다 불자와 스님들의 인식 부재가 낙후된 포교 환경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장애인 포교를 위해서는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철환 활동가의 주장이다.

그는 조선시대의 장애 인식을 선례로 들었다. 조선시대에는 맹인 국가조직인 ‘명통시’가 구성돼 왕의 행차 등에서 경을 읊었다. 또한 조선 초 재상 허조는 중증척추장애인이었고, 일각정승 우의정 윤지완은 별호처럼 다리 한쪽이 없었다. 모두 장애가 있었지만, 차별없이 자신의 능력을 펼쳤다는 것이다.

김철환 활동가는 “지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모두 서양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다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불교가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강한 스님들은 장애인 인식과 현재 불교 포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리산 선림사에 주석하고 있는 현등 스님은 “장애인 인권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갖게 됐는데 마치 종단에서 연수 교육이 마련돼 수강하게 됐다”면서 “종교의 사회적 역할에 꼭 필요한 교육이다. 이 같은 교육은 애초 승가기본교육에서부터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서담 스님은 “장애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관련 제도와 지식들을 알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했다. 봉선사에 주석하고 있는 현진 스님도 “향후 불교가 꼭 포용하고 가야 할 포교 계층이 장애인”이라며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포교 원력이 정립됐으면 한다”고 했다.

자살예방 위한 4대종교 힐링콘서트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이 함께 모여 자살 예방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5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4대 종단과 함께하는 생명문화힐링콘서트’를 개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살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살사’는 ‘살자 사랑하자’의 줄임말로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와 서울시가 협력하고 있다.

이날 행사서는 콘서트 1부 ‘삶과 죽음에 대한 열린 TALK’ 시간에 4대 종단 전문가와 함께 하는 소통시간이 열렸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을 시작으로 노용찬 빛고을나눔교회 담임목사, 민성효 원불교여성회 지도교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이정민 신부는 각 종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토크를 이어갔다.

2부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를’ 시간에는 자살의 아픔과 위로에 대한 영상 시청과 각종단 별 기도문 낭독 시간도 열렸으며 불자가수 김무한 씨의 공연도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태권도’로 불교 포교 나선다

세계불교태권도協, 6월 9일 은해사서 창립총회

돈관 스님 명예총재로 추대
현직 관장 · 코치 80여 회원
하반기 태권도대회 계획도

스포츠 포교 분야에서 불교 불모지로 손꼽혔던 ‘태권도’에도 불교 포교를 위한 전진기지가 설립된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오는 6월 9일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템플스테이관 2층에서 창립총회 및 법회를 봉행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태권도로 통해 홍포하기 위해 창립되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을 협회의 명예총재로 추대했으며, 총재로는 태권도 9단인 김욱한 ㈜진영정밀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 협회에는 현직 관장, 코치, 심판과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8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불교태권도협회는 공식 출범과 함께 조직화와 공식 대회 개최에 사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문섭 세계불교태권도협회 고문은 “현재는 대구 경북에 협회가 있지만, 향후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전국 광역시에 지부를 설립하고 조직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는 불교 태권도대회를 열어 불자 태권인의 기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이 같은 대회를 불교인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권도 포교에 호국불교의 산실 은해사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은 “불자 태권도인들이 불법홍포를 위해 마음을 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포교에 앞장서는 불자 태권도인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불사라고 생각한다. 은해사는 세계불교태권도협회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자 대학생으로 활발한 활동 서원”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

청년대학생 불자 중 어린이 · 청소년기 종교를 갖지 않고, 대학교 동아리 활동 및 소규모 모임을 통해 불교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특정 사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많은 대학생 불교동아리 및 소규모 청년법회의 불자들이 수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수계법회가 열려 화제다.

청년대학생 전법단(단장 무각)은 5월 25일 서울 조계사 극락전에서 연합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계법회서는 대불련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7개 지부 29개 지회의 95명의 학생들이 오계를 지키겠다며 팔에 증표를 새겼다.

이날 식전행사로 청년대학생 전법단장이자 전계사인 무각 스님, 전법단 사무국장이자 이화여대 지도법사 효석 스님, 서울여자간호대 지도법사 지인 스님, 서울대 지도법사 운성 스님, 성신여대 지도법사 자우 스님 등이 법사로 참여했다.


대학생 불자들이 연합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고있다.

법회에는 1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 동국대 정상훈, 서울여자간호대 김가언, 국민대 구경모 회장에 대한 포교원장 표창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전법단장 무각 스님은 “불교는 모든 존재들이 바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라며 “그 일을 이루려면 첫 번째 관문이 삼귀의계와 오계”라고 강조했다.

함승연 한국외대 학생은 “연희단 등을 통해 불교행사에 많이 참여할 생각”이라며 “대불련 등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현진 대불련 지도위원은 “최근 대학생 불교가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끊임없는 애정을 갖고 지도해주는 스님들과 동문, 운영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불련은 8월 2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만해마을과 3대 관음성지 낙산사에서 10회 영 부디스트 캠프를 진행한다.

노덕현 기자

외국인 인플루언서들 “템플스테이 매력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소셜미디어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주한 외국인들에게 템플스테이의 매력을 알렸다.

문화사업단은 “5월 23~24일까지 평창 월정사에서 외국인 SNS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성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주한 외국인 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월정사에서 예불, 사물체험, 108배, 연꽃등과 염주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에 참여했다.

팸투어에 참가한 루카스 쿠처(Lukas Kutscher, 대학원생)는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를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일상생활에서 쉽게 만나기 어려운 스님과의 차담 덕분에 평소 불교에 갖고 있던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호섭 기자

